‘소비자 신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2곳 매출 130억원↑

남면농협 110억 달성 이어 광주권 90일만에 20억 매출 올려

명절 맞아 과일·육류 등 상품성 인정 2억원 넘는 일매출 기록

소비자 신뢰 속에 장성 로컬푸드직매장이 매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장성군은 지역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직매장 2곳의 매출이 지난 13일 기준 13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남면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110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6월 개장한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직매장도 개장 90일 만에 2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청정 장성에서 생산된 과일과 육류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아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각광받으며, 2억원이 넘는 일매출을 기록해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장성 로컬푸드직매장의 인기몰이 비결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두터운 신뢰 덕분으로 나타났다.

당일 수확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농가가 직접 진열 판매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 군 자체적으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연중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다. 아울러 건강한 가정식을 선호하는 최근의 소비 추세에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의 입지 요건이 맞물린 것도 매출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중소농업인과 도시 소비자 모두를 위한 도농 상생 우수 직매장으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생산지원 확대는 물론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나주배 명성회복’ 나주시, 저품위과 수매 박차

중소과 수매 사업 추진…태풍 낙과배 274톤 수매 등 고품질 나주배 유통 총력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저품위과에 대한 선제적 시장 격리를 통해 고품질 나주배 유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봄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병해충 피해가 적어 올해 배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4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과 유통, 가격 폭락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윤병태 시장은 민선 8기 5대 시정 방침 중 ‘지속가능한 농업, 살맛나는 농촌’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나주배 명품 브랜드화’를 제시했다.

그 첫 단추로 작년과 올해 생산된 소과, 기형과, 병과 등 저품위과를 가공용으로 매취해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과 선별·유통을 통한 나주배 이미지 제고에 주력한다.

시는 올해 예산 8억원을 확보, 지난 설에 이어 추석 명절이 지난 시점에서 중소과 배를 수매하고 가공업체를 통해 배즙, 배퓨레 등 가공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11호 태풍 ‘힌남노’ 여파로 피해를 입은 배 농가를 지원하고자 낙과배 수매에도 팔을 걷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태풍으로 인한 배 낙과 피해 면적은 1011ha(약 305만평)로 집계됐다.

시는 추석 전후 이뤄진 피해조사를 통해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거점APC), 나주배원예농협과 274톤 분량의 낙과배를 수매하고 타들어가는 농심을 달랬다.

나주=송준표 기자

담양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운영

담양군이 농업인의 가장 큰 호응을 받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의 추가 확보로 모두 다 잘사는 부자농촌 만들기에 초석을 다졌다.

담양군은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 시행한 추경에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예산 4억 7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관내 1년 이상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한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에게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담양군은 올해 본예산으로 2억 7천만 원을 확보해 상반기 208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신청액 대비 30%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 384농가를 추가로 선정해 연내 80%까지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수요가 가장 많은 사업으로, 신청액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지원을 받게 돼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식품위생교육 친절서비스 뮤지컬 공연

일반음식점 대상 친절서비스 뮤지컬 공연 및 위생교육 실시

구례군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섬진아트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뮤지컬 공연 및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구례를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친절서비스 뮤지컬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손님에 대한 친절을 무기로 청결한 조리환경과 정성을 다해 만들어 낸 음식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는 내용으로 재미있고 유쾌한 뮤지컬 공연을 통해 참석자의 호응을 이끌어 내 교육효과를 높였다.

일반음식점 영업주 교육은 식품위생법상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원산지 표시의 올바른 이해 등으로 세분화하여 진행되었고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청결한 환경과 복장,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음식 관광지로써 우리 지역 알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2022년 신규 공무원 소양 교육 실시

곡성군은 지난 13~14일 이틀간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45명이 참여했다. 이중 5명은 이미 발령을 받아 근무 중인 공무원이었으며 40명은 아직 발령이 나지 않은 임용 후보자들이었다. 임용 전에 지역과 공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공직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 첫째 날에는 죽곡면 강빛마을에서 자기 소개와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것으로 교육이 시작됐다. 이어 직장 내 상호 존중을 위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이야기가 오갔다. 교육생들은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후배 공직자를 위해 곡성군 서형규 기획실장이 직접 강의에 나서기도 했다. 서 실장은 선배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노하우, 애향심를 강조하며 지역과 공직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둘째 날에는 지역 탐방을 진행했다. 타 지역 출신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공무원들에게 지역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 탐방은 제22호 국가지정습지인 침실습지에서 시작됐다. 이어 우리나라 선종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태안사, 신숭겸 장군의 탄생지인 용산재, 심청의 원형 설화가 전해오는 관음사,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 유팽로를 기리는 유월과 정열각,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60호 함허정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곡성=양해영 기자